

# 한·미·일 정상 “평화·안정, 대북 3각 공조 강화”

윤 대통령 “북위협, 협력 중요성”  
바이든 “지속적 북 핵실험 우려”  
기시다 “북 핵실험 시 공동훈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 대회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마드리드 시내의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마주보는 구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역사적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회담이 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회의를 주재해준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고,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또 뵙게 돼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역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저스틴 아던 뉴질랜드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자격으로 초청됐다. /연합뉴스

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역지력 강화를 위해 서로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하며 “즉시 해결을 위한 노력, 윤 대통령의 지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야 “오는 4일 의장선출...여와 협상 최선”

“파행되면 의장 선출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1일 바로 의장단 단독선출을 강행할 경우 여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흘간 시간을 더 벌면서 여야 간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못 박으면서 그때까지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단독선출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속에 입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7월 입사국회 시작일인 1일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1일 바로 본회의를 열기보다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잡아두고 그때까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의 의총 발언을 통해 오는 4일까지 일단 본회의를 유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애초에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계획을 했지만 의원들과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충분히 국민의힘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파행한다면 우리도 월요일(4일) 오후에는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 총리 “경제 급박한 상황...신속대응 중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다”며 관계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금융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율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 또한 더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탭’(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런 대내외적 요인으로 우리 물가도 급등했다”며 “당분간은 고물가로 인해 가계 생계비와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은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장관님 책임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현안 대응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회의의 주제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독립 기관인 한은 총재가 정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장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일상과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